

# 사랑의 명령

평양출판사

주체110(2021)년

## 머 리 글

흔히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하면 예리하고 딱딱한 무감정의 세계, 복종과 의무만이 지배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군사사업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와 더불어 명령이라는 말이 사랑과 정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동을 자아내는 눈물겨운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과 위대한 변혁의 력사가 창조되게 한 명령, 만사람

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절세위인의 명령과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들가운데서 위민헌신의 장정우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긴 사연깊은 일화들의 일부를 여기에 담아본다.

## 차 례

꽃감과 최고사령관명령 .....	4
긴급출동명령 .....	8
바다를 다 뒤져서라도 .....	14
한 체육인의 건강을 위해 .....	19
비행장이 사철 푸른 남새바다로 .....	23
긴급철수명령 .....	28
북구가 아닌 천지개벽으로 .....	33

## 꽃감과 최고사령관명령

쫄깃쫄깃하고 꿀처럼 단맛을 내는 꽃감.

어찌 보면 낱알농마로 만든 옛갈기도 하고 자연의 《식료공장》에서 생산한 말랑말랑한 사탕갈기도 하다.

남녀로소 누구나 좋아하는 꽃감은 엄마들이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아이에게 쥐여주는 효능높은 《진정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꽃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기식품이라고 할수 있다.

아이들이 이처럼 좋아하는 꽃감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육친의 사랑이 뜨겁게 어리어있다.

주체103(2014)년 2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마음껏 뛰놀고있던 귀여운 어린이들이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였다.

아이들을 한품에 꼭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참동안이나 원아들의 볼을 따뜻이 다독이시고 쓰다듬어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육친의 사랑과 정을 나 어린 가슴에 받아안은 아이들은 그이앞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를 불러드렸다.

노래가 끝나자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이어 육아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잠자는 아기들의 모양을 웃음속에 보시면서 태어난지 얼마나 되었는가 물어도 주시고 놀이장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시고서는 말도

시켜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윽고 주방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는가를 알아보시고 육아원에서도 애육원에서처럼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애육원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불이 오동오동하다고 하시면서 올해부터 그애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300g씩 먹여야 하겠다고, 육아원, 애육원의 아이들에게 고기, 물고기는 물론 영양가높은 꽃감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한 인민군부대들에 꽃감을 마련하여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사탕, 과자와 같은 간식을 떨구지 않고 먹이려고 애쓰는 부모는 있어도 꽃감과 같은 천연영양식품까지

정상적으로 먹이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것이다.

얼마나 원아들을 사랑하시였으면 온갖 행복을 다 안겨주시고도 못다 준 사랑이 있으신듯 국가방위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민군대에 군사과업도 아닌 곳감을 마련하여 원아들에게 보내주는 문제까지 마음 쓰시였으랴.

이것은 정녕 원아들을 더 잘 먹이고 한 가지라도 더 안겨주시려 로고를 바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는 숭고한 후대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천만가지 심혈을 기울이는 친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사랑의 조치였다.



## 긴급출동명령

주체101(2012)년 7월하순 어느날 밤 우리나라의 북부내륙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23일 새벽 3시간동안에만도 6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가 쏟아진 구룡강상류부근에는 짙은 안개가 서리여있었고 큰물에 의하여 주민지구가 침수되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며칠째 하늘에는 비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지고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고있었다.

이런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어느 한 비행부대에 긴급출동명령이 내려졌다.

이어 구조전투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 군인들을 태운 비행기가 평안북도 운산군의 피해지역을 향하여 날아갔다.

그곳에서는 미처 피하지 못한 여러명의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포함한 주민들과 노동자들 60여명이 둔덕진 곳에 피신하여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현지에 도착한 비행사와 군인들은 지체없이 구조전투에 진입하였다.

군인들은 짙은안개가 낀 불리한 기상상태와 큰물로 착륙할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놓고 한명한명 사다리로 끌어올리며 구조전투를 벌렸다.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비행을 하면서 진행된 구조전투에서 군인들은 뜨거운 애민정신과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던 6명을 비롯하여 전원을 무사히 구원하였다.

군인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구원된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성실한 땀으로 나라에 자그마한 보탬이라

도 주기 위해 애쓰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었다.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고 여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그처럼 인민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그들모두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였고 기상조건이 불리하였지만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인민군대의 어느 한 비행부대에 긴급출동명령을 내리시였던것이다.

이것을 어찌 운산군인민들만이 받아안은 사랑이라 하랴.

만물에 생명을 주는 태양의 빛도 각이한 모양새를 가진 지구의 표면을 속속들이 다 비쳐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우고 운명을

지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해빛은 룩지와 멀리 떨어진 외진 섬마을이나 하늘아래 첫 동네, 지어 인적드문 산골마을이라 할지라도 인민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따사로움을 안겨준다.

주체102(2013)년 1월중순 증산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며칠전 조개잡이로 바다에 나갔던 4명의 증산군주민들이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얼음장우에 몸을 실은채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가족들과 군인들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사람들이 지체없이 구조전투에 떨쳐나섰다.

손에손에 불뭉치를 들고 애타게 찾고찾는 사람들의 웨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바다기슭의 여기저기에 불무지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망망대해를 헤매이는 주민들을 도

저히 찾아낼수가 없었다.

하늬바람이 때없이 불어오는 대소한의 계절이었던지라 사정을 모르는 동장군이 달려들어 표류하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그들의 신상을 기약할수 없는 처지에로 몰아넣을수 있었다.

안타까움과 걱정속에 긴박한 시간이 흘러가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있었다.

그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을 돌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초침이 앞서 돌아가고있음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표류하는 증산군주민들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의 한 비행부대에 긴급출동명령을 내리시였다.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비행사들은 즉시에

출동준비를 갖추고 서해상공으로 날아올라 표류하는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구조전투를 벌리었다.

가없이 펼쳐진 망망한 바다우에서 그것도 1월의 혹한속에서 표류하는 주민들을 찾아 낸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민의 생명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은 군인들은 참빛으로 훑어내 듯 바다우를 날고날으며 찾고 또 찾았다.

비행에 비행을 거듭하던 비행기는 끝끝내 차디찬 바다우를 헤매던 주민들을 발견하고 그들모두를 생사기로에서 구원하였다.

조국의 품에서는 한사람도 불행이나 슬픔 을 몰라야 한다는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긴급출동명령!

이것은 사랑이었다. 가장 신성시하고 귀중 히 여기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었다.

## 바다를 다 뒤져서라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생을 마치는것은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육체가 사멸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간의 생이 끝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고 대를 이어가며 계승되는 넋을 남긴 인생은 영원하다. 죽어서도 영생하는 값높은 삶을 받아안은 사람들속에는 평범한 해병들도 있다.

주체102(2013)년 11월초 어느날이었다.

이날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안에는 무엇이든 형언할수 없는 비애의 빛이 짙게 어려 있었다.

그처럼 사랑하던 해병들이 희생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잠 못이루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용사들이 근무하던 동해기슭의 명당자리에 묘자리까지 잡아주시고도 희생된 군인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터져오르는 비감을 누를길 없으시여 멀고 험한 길을 달려 이곳 해군부대를 찾아주시었던것이다.

묘소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한명한명 용사들의 돌사진을 살펴보시며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같다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과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같다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오래동안 용사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으신듯 용사들의 묘를 점도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시다가 합장묘라고 하여 묘주가 없다는 법은 없다고, 용사묘에는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이들의 묘주는 최고사령관인 자신께서 되겠다고 하시며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최고사령관의 거룩한 존함이 묘주로 새겨지는 전무후무한 인간사랑,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폭이 동해기슭의 나지막한 언덕에 펼쳐지게 되였다.

떠나간 전사들을 두고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며칠밤을 꼬박 새우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그리도 애석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지난 10월중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였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였고 사고현장이 깊은 바다였던지라 그때까지만 하여도 희생된 용사들의 시신을 다 찾지 못하였었다.

부대지휘관들은 생각던 끝에 조상전래의 관례대로 용사들이 희생된지 3일만에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해당 부문 일군에게 귀중한 전우들의 생사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또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을 모두 찾기도 전에 장례식부터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전투 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전투원들이라고 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푸짐한 식사 한끼 제

대로 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것같다고, 자신께서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마지막 한사람까지 시신을 다 찾아내여 장례식을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온 바다를 뒤져서라도 전우들의 시신을 찾아낼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얼마나 정을 다해 사랑하시던 바다의 용사들이였던가.

함선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자기들의 훈련모습도 보여드리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던 바다의 용사들,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살붙이와도 같은 귀중한 전우들이였기에 그이께서는 꿈 아닌 현실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으시였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다 희생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희생된 용사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한목숨바친 용사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따사로운 태양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간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인생의 값 높은 영광을 받아안은 용사들의 생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할 것이다.

## 한 체육인의 건강을 위해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가운데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불같이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거대한 감화력으로 수천만사람들의 심장을 매혹과 흠모로 격동시키는 위인의 세계에서만 볼수 있다.

민족대국상의 나날 한 인간이 받아안은 가슴뜨거운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인정미를 전하며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주체100(2011)년 12월말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식을 하루 앞둔 이날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슬픔으로 하여 눈물의 바다를 이룬 조국의 하늘로 한대의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비행기안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한 여성이 타고있었다.

4.25체육단 신화순 송구감독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애도기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도 많고많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그의 건강을 두고 걱정하시었다는것을 아시고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다.

몇달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치료를 받아 호전되어가던 그의 병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소식에 접한 후 커다란 심리적충격으로 심히 악화되었다.

애도기간인 12월하순 어느날 그의 병 치료정형을 몸소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그를 지체없이 외국의 이름있는 병원에 보내어 치료받도록 하여야 하겠다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는 걱정의 눈물을 흘리며 일군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출발을 늦추어 위대한 장군님을 바라워드리는 영결식에 참가하고 떠나겠다고 거듭 애원하였다.

그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말하였다.

《동무를 하루빨리 떠나보내라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오열을 터뜨리며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명령》이라는 말이 생겨 아마도 수백 수천년.

류수와 같이 흘러간 오랜 세월속에 이 말과 함께 생겨난 가지가지의 일화들이 수없이 많다.

그 일화들은 하나하나가 다 사랑과 정이라는 고상한 감정세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군사실무적관계로만 이루어진것들이었다.

그처럼 굳어진 관례를 초월하여 민족이 피눈물을 뿌리는 대국상의 나날 평범한 체육인이 령도자의 명령으로 치료를 떠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졌으니 만인의 감동을 자아낸 심연과도 같은 위인의 사랑의 세계를 어이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 비행장이 사철 푸른 남새바다로

주체107(2018)년 7월중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나라 북변에 자리잡고있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비행장을 찾으시였다.

뜻밖에 경애하는 그이를 부대에 모신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긴급명령을 예견하여 한껏 긴장되어있었다.



그러한 그들을 웃음속에 일별하시며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온것은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자고 온것이 아니라 함경북도인민들에게 남새온실을 지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비행장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드넓은 대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구획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만한 면적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눈시울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불리한 기후조건때문에 남새가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던 이곳 인민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기에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대용단도 서슴없이 내리시고 조국보위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장도 통채로 내어주시는것이 아니겠는가.

도의 책임일군이 그이를 우리르며 감격에 겨워 온실농장을 훌륭히 건설하여 도의 긴장한 남새문제를 꼭 풀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동무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동행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기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의 남새온실농장건설이므로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한다고, 당에서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마음먹고 마련  
해주는 농장인것만큼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  
이 보장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내리신 명령을 받아안고 착공의 첫  
삽을 박은 인민군군인들은 1년 남짓한 기  
간에 방대한 면적에 거창한 온실바다를 펼  
쳐놓았으며 온실농장지구의 현대적인 살림  
집, 문화후생시설, 양묘장을 훌륭히 완공  
하였다.

정녕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찌는듯한 폭  
염속에서 일요일휴식마저 바쳐가며 헌신과  
로고를 바치고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어  
라》의 노래를 부르며 그 혜택을 누리는 나

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던가.

이것은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 공화국의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복종의 복, 행운중의 행운이다.

## 긴급철수명령

어느 한 공장에서 강성원건설이 한창이던 때에 있는 일이다.

건설장주변에는 곳곳에 류다른 《차단소》라는 특이한 초소가 생겨났다.

한것은 자기들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군인들을 원호한다고 하면서 주변마을사람들과 종업원들이 지원물자를 이고지고 때없이 찾아와 지휘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기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허리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무엇인가 힘들게 들고 《차단소》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이보라구 군대총각, 이걸 내 손으로 담긴 갓김치야. 내가 힘들어한다구 며늘애가 오겠다고는걸 내가 가지구 왔어. 늙은 할미 헛걸음시키지 말구 받아달라구, 응?》

《차단소》에서 근무를 서던 애 어린 병사는 할머니의 진정이 어린 말을 듣고 감동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할머니,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끼치지 말라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입니다. 제발 저희들이 명령을 집행할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늙은이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병사도 만만치 않았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감동되어 목소리마저 갈리었던 그는 언제였더냐싶게 《안됩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한마디 하고는 영영 《병어리》가 되어버렸다.

인민을 그토록 아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으신 뜻에 할머니는 인민의 군대가 다르긴 다르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다.

어느해 여름 우리 나라 북부의 압록강연안에 위치한 신의주일대의 피해복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긴급철수명령은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던가.

그때 공사가 거의 끝나갈무렵 도의 책임일군들과 인민들은 복구전투를 벌리느라 수고한 군인들에게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기 위해 성심성의로 그 준비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식사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던 날 아침에 뜻밖에도 부대지휘관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 부대전원이 주둔지로 철수하고 저희들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병사들을 더 기다리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민들이 지금 군인동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데 그 성의를 받아주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너무합니다.》

인민들이 자기들의 섭섭한 심정을 터놓는데 부대의 지휘관들이 하는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신데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었다.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주요전구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말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하늘처럼 여기시는 인민이기에 그들에게 주는 그 자그마한 부담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던 것이다.

## 복구가 아닌 천지개벽으로

주체109(2020)년 10월 어느날.

한대의 렬차가 산굽이를 돌고돌며 검덕으로 달리고있었다.

태풍에 의한 피해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않은지라 렬차가 통과하게 되어있는 철길로상에는 큰물피해로 무너졌던 철교를 임시복구한 협곡철길구간도 있었다.

통나무와 자갈로 가설기둥을 세우고 레루를 놓은 철교,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기차는 멈춰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그 철교우로 한m한m씩 전진해나갔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물먹은 지층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이 위험천만한 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로 그 련차를 타시고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주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그이만을 하늘같이 믿고 어려움도 웃으며 헤쳐가는데 자신의 신상은 돌보지 않으시고 것처럼 위험한 길을 걸으시니 이런 때 인민은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한단 말인가.

인민에게로 달리는 강렬한 사랑이 없이는, 보통의 각오와 의지로는 엄두조차 낼수 없고 인민을 위한 헌신을 고생이 아니라 락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사생결단의 그 길을 갈수 없다.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사심없이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이라는 인생관을 지닌 진정한 인민의 어버이만이 난관과 시련이 겹쌓

이고 위험이 가로놓인대도 웃으며 갈수 있는 길이었다.

그이께서 인민을 위한 고생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하시며 헤쳐오신 위민헌신의 길에는 2 000여리의 라선길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몇해전 라선시가 재난을 당하였을 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최대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문제를 중요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수백마리의 홍학과 청학들이 떼를 지어 내려앉은듯 황홀하기 그지없는 새 살림집지구가 펼쳐졌을 때에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며 비행기와 배를 타시고 머나먼 길을 단숨에 달려가셨던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집을 잃고 고생하고 있는 리재민들에게 따사로운 해빛을 안겨주시려 오늘은 멀고 위험한 길을 헤쳐 검덕지구에 찾아오시였다.

당시 검덕지구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필서명하신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따라 복구전투가 맹렬히 진행되고있었다.

인민이 겪는 고생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는 진정을 담아 태풍9호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한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을 내리신 지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하달하신 명령이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건설장으로 가시는 령길에서 빼곡이 늘어선 단층살림집들을 보시며 큰물피해를 받은 천여세대나 다시 건설해놓는것으로써는 정말 량심이 허락치 않을것같다고,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하시면서 검덕지구건설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완전한 천지개벽,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무릉도원의 구상을 펼치시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이 펼쳐진 황홀한 도시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금시 눈앞에 보이는것만같았다.

진정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아슬아슬한 협곡철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시여 인민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당부하시고 검덕지구를 완전히 일신시켜

지방건설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 혁명을 창조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로고를 바치시니 끝없이 이어가시는 위민헌신의 길의 시작은 어디고 그끝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 \*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고귀한 리념, 멸사복무가 없다면 위대한 우리 당도, 조국도 없다는 지론을 대명제로 높이 드시고 류례없는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멸사복무의 길우에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모진 고생

과 쓰러린 아픔을 스스로 떠안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만사람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에 대한 이야기, 큰물피해를 입은 함경남도인민들을 위해 피해복구용주요자재를 국가예비분에서 해제하여 긴급보장하도록 대책하시면서 중앙에서 재정물질적으로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이야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담겨진 명령과 함께 꽃피어난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한한 위민헌신의 길우에 인민의 웃음으로 엮어지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끝없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 사랑의 명령

---

집 필	림 경 호
장 정	채 대 성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1월 3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1월 5일

---

7-1513ㄷ